

소진영 작가 개인전 '피어나다'

전주영화제작소, 30일까지 무료대관 공모전시 선정 전시... 한지 소재 피어남 주제

전주 시민들에게 예술, 독립영화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힘써 온 복합문화공간 전주영화제작소에서는 이달 '2023 무료대관공모전시' 선정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 마지막 전시로 조형작가 소진영 작가의 개인전 '피어나다'가 12일부터 30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소진영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교 미술학과 조소미술학 학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한지문화산업학과 예술학 석사, 군산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현대미술전공 조형예술학 박사를 거쳐 현재 지고지순(지치노오브제) 대표, (사)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 대한민국 전통한지공예 명예회장을 지니고 있다.

개인전 및 초대전 10회와 그룹전 40여회의 베테랑 작가이다.

이번 전시 '피어나다'를 준비한 소진영 작가는 "피어남(에너지)을 주제로 해, 미적 감각으로 획득되는 상징으로 꽃이란 자연 이미지를

한지와 빛과 색채를 융합해 표현했다"고 밝혔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우리 일상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들을 환기하고, 표현 영역의 확장과 작품에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해, 해석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전시의 뜻을 전했다.

본 전시는 전통 문화 자원을 한지를 소재로 했다.

한지는 한국적 정서를 내포하면서 한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재료라 할 수 있다.

전통 재료인 한지의 독특한 느낌은 자연적 정서가 담긴 이미지와 피어남을 주제로 한 에너지를 잘 나타내주는 소재이며, 새로운 표현 기법을 통한 독특한 질감의 표현으로 한국 고유의 차별화된 소재 영역의 확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단, 매주 월요일 휴관)

/김재훈 기자



소진영 작가 개인전 '피어나다' 포스터

“겨울방학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오세요”

어린이 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어린이(6~10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왕의 상징에 대해 이해하고 용 예코백을 색칠하는 '임금님 납시오!'는 상설전시 전주와 조선왕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이어 조선시대 선비의 소망을 그린 그림인 '평생도' 속에 등장하는 물건을 만져보고 미니

병풍을 만들어보는 '평생도 속 물건 찾기'는 매주 수요일 3회(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교육실에서 이뤄진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상호작용하며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끝으로 조선 선비의 아이템인 갖과 부채에 대해 알아보고, 종이 갖을 만들어보는 '선비잇템'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어린이박물관 왼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열린공간 온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청소년 국악강좌 '틴틴창극교실'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은 겨울방학을 맞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 국악강좌 '틴틴창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극교실은 어린이들이 창극과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국악교육프로그램으로, 올 겨울방학에는 판소리 '수궁가'를 주제로 판소리와 전래놀이, 국악동요 등을 배우며 창극 '별주부전' 공연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협동심, 표현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20일이며, 대상은 초등 1학년~6학년(16년생~11년생)으로 선착순 20명(수강료 5만원)이며, 교육은 1월 4일부터 19일(토, 일요일 제외) 장소는 국립민속국악원 연습실이다.

접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악과(063-620-2319)로 문의하면 된다. /남일=김기두 기자



정음시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정음시예술회관에서 정음시립국악단 연말 작품발표회 '정음을 품다' 공연을 펼친다.

정음시립국악단, 연말 작품발표회 '정음을 품다' 13일 공연

정음시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정음시예술회관에서 정음시립국악단 연말 작품발표회 '정음을 품다'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무용부의 '왕비의 하루'를 시작으로 연주부의 '케렌시아', 창극부의 단막창극 '춘향가 중 어사상봉막'이 어우러져 진행되고, 전 단원이 함께하는 '정음 아리랑'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은 "정음시립국악단 연말 작품발표회는 관람객들의 선호도 조사와 전문위원의 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국악단의 기량향상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과 진심 어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장수군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장수군, 문화재청장상 수상

'가야고분 미스터리 탐험대' 문화유산교육 우수사업 선정

장수군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워크숍에서는 문화재청이 전국 46개 지역문화유산교육을 평가해 5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장수군 '가야고분 미스터리 탐험대'가 처음으로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북가야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가야고분 미스터리 탐험대'는 장수군 대표 문화유산인 '장수 동촌리고분군'을 주제로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해 '장수가야 에피소드 공작소', '청소년 문화유산 쉼크랭크', '장수 문화유산 교육감사 양성과정' 등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전북가야문화원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유산에 대해 쉽고 재밌는 방식으로 교육해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며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왔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순 방문이 아닌 증강현실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발굴 체험, 발굴된 유물을 활용한 3D 모형 제작 등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장수군에서 조사되는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활용한 장수군민의 역사체험교육을 운영해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